

# 셋다운 우려 광양제철 '긴장'...인적 끊긴 순천 도심 '적막'

코로나 확산세 순천·광양 가보니

10여일간 전남 확진자의 82% 달해 광양제철 내부 목욕탕 등 시설 폐쇄 통근버스 탑승자 일일이 발열체크 움츠린 순천 식당가 개점휴업 상태 단체예약 줄줄이 취소에 시름 가득

코로나19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전남 동부권 순천·광양 일대에서 만난 주민들의 얼굴에서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7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순천과 광양에서만 각각 28명·2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 기간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자 61명의 81.9%에 이른다. 불과 하루전인 15일에만 11명(순천 5명·광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6일 오전에도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람들을 피하고 외출을 꺼리는 심리는 도시 전반에 퍼졌고 확진자가 쏟아진 식당 일대는 행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출근길에 마주한 광양제철소·협력업체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 눈인사만 건네고 대화를 자제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대화 사리지고 회사 목욕탕 문 닫고=16일 오전 7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향하는 통근버스 정류장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서는 협력업체 직원의 확진 판정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돌았다.

이날 오후 2시까지 광양지역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11명이 모두 광양제철 3개 협력업체 직원들로,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회사 동료들 234명이 자택에서 격리된 상태다. 이 때문에 출·퇴근 교대 근무를 위해 정류장에 모인 직원들의 피곤한 표정 속에서는 두려운 기색이 엿보였다. 포스코 광양



16일 오전 7시께 포스코 광양제철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근무 뒤 퇴근하려는 직원들이 줄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제철 내에는 포스코 직원 6300명· 58개 협력사의 직원 9500명이 한꺼번에 근무중이다. 계열사 직원들도 2000명이 근무하고 있어 매일 출·퇴근 인원만 4만여명에 이른다. 감염이 확산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우려가 높다. 협력업체 한 곳만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셋다운'이 될 경우 협력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광양제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직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류장에 모인 직원들은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대신, 마스크를 쓴 채 코로나 확진 속보를 검색하면서 버스를 기다렸다.

통근버스 출발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줄지어선 버스 30대에 올랐다. 통근버스 기사들이 체온계를 들고 탑승하는 직원들의 발열체크를 해 승차시켰다. 광양제철 직원 10여명도 나와 '통근 차량 탑승시 마스크를 꼭 착용합시다'라

고 적혀 있는 어깨띠를 두르고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광양제철에서 2년째 근무중이라는 A씨는 "광양제철 협력업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내부 분위기도 조심스럽다"면서 "퇴근하면서 샤워도 하지 않고 식사 때도 밥을 따로 먹는 등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퇴근길이라는 B씨는 "구내 식당 대신, 도시락을 시켜먹는 직원들도 늘었다"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거의 만석 수준으로 운영되던 광양제철소 내 4개 구내식당 평균 운영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측도 10인 이상 모이는 회의를 자제하고 교육과 행사는 모두 중단했다. 발열체크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회사 내 실외 체육 시설과 내부 목욕탕, 샤워시설 모두 폐쇄했다. 광양



16일 오후 순천시 연향동 일대. 최근 한 식당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점심 시간에도 행인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발길이 뜸해졌다.

제철 협력업체도 이날 계획했던 체육대회와 소규모 그룹활동 등을 모두 취소했다.

◇거리 텅텅...발길 뜸 끊겨 '적막감' =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무려 28명의 확진자가 나온 순천 도심은 발길이 뜸 끊기면서 활기를 찾기가 어려웠다. 최근 3일(14-16일)간 17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다보니 잔뜩 움츠린 듯 보였다.

이날 정오께 찾은 순천시 연향동 일대는 점심 시간인데도 지나다니는 시민 한 명 찾기가 힘들었다. 연향동 식당에서 확진자 5명이 발생하다보니 일대 식당들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었다.

연향동에서 아구찜 전문점을 하는 C(여·58)씨는 "오전에 가게문을 열었는데 점심 시간 지나도록 손님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주말에도 고작 세 테이블만 채웠다"고 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왕지동 식당가와 조례동 일대

도 비수했다. 올해 기록이나 힘들었는데, 연말 송년회 특수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왕지동에서 굴비정식집을 운영하는 업주는 "지난 주말부터 단체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연말이 코앞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순천터미널 앞은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긴 줄이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터미널 앞에서 대기하던 택시 30여대는 15분 간 단 한 명의 승객도 태우지 못했다. 택시기사는 "손님 태우고 나가려면 1시간은 죽어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과 경기침체까지 맞물리면서 올 초부터 힘든 시기를 지내온 지역민들은 제차 확산하는 코로나에 울상을 짓고 있다.

/순천·광양=정병호·김민석 기자 jusbh@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학교 설립자의 가족이 납품업자와 짜고 돈 빼먹어 재판장의 일침 "징역형 면한 것 다행으로 생각하라"

"솔직히 용납안됐습니다. 학교법원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12일 법정에서 A(58)씨 등 2명의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무엇보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A씨는 사무용품 납품업자 B씨와 공모, 재생 프린터 토너를 정품으로 속여 학교에 공급하면서 비용을 과다 계산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나눠 갖는 수법으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던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법인 설립자의 가족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할 사람이 법원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이용해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장은 피해 학교법인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A씨에게 "징역형 실행(實刑)을 면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위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두환 재판 방청 시민 30명 공개 모집

26일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신청

전두환(89)씨 재판을 지켜볼 수 있는 일반 시민 30명을 공개 모집한다. 법원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우려,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 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모바일 문자메시지(1800-3251)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일반방청석 30석을 배정하고 2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첨 여부를 통보한다.

희망자는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발송하면 된다. 1회만 발송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1인이 중복 응모하거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명의로 응모해 중복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오는 30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 입구에서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배정석 43석과 일반방청석 30석으로 방청 규모를 제한했다.

선고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일반 방청객 30명은 법원 내 204호 중계법정에서 화상으로 재판 상황을 방청하게 된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의료 과실 환자 사망...의사 벌금형

가나다른 관(카테터)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700만원)보다 낮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지역 대학병원 신경과 전공의인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입원 환자 B씨를 치료하기 위해 카테터를 쇠골하정맥에 삽입하려다 동맥에 잘못 삽입하고 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 A씨의 업무상 과실이 근본적 원인이기는 하나 다른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기여한 바도 크다"면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열악한 의료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반영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